

熊川 住居址 平面

面에 잘려 있는데 우 리 것은 略圖에서 보 다시피 全形이 矩形이 고 內部에는 없고 住 居의 輪廓만을 表示하 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것은 或是 이 돌들이 一種의 礎石의 意義를

가진 것이고 그 위에 진흙 같은 것으로 壁을 쌓아 올렸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 間壁을 두어 二室으로 만든 것 같은 것은 進步된 方法인데 이 間壁같은 石列은 或是 爐址 같은 것과 關連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이 或是 훨씬 後代의 어떠한 建物址가 아닌가도 疑心할 수 있겠 지만 實査해 본 結果 그 附近에 瓦片이나 其他 後代建物에 關係되는 遺 物이 絶無할 뿐 아니라 그 돌들이 단단한 地面에 꼭 박혀 있어 地面과 石上面이 同一한 것 등으로 元來 이 돌들이 地下에 若干 묻혀있던 것이 表 土가 쓸려 나가 地上에 露出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 것이 原史時代의 貝塚과 近接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도 아마 貝塚과 關連 되는 原史時代의 山上住居址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이 遺蹟을 略調査한 後 動亂이 일어나고 뒤이어 長期 國外旅行等 多事하여 아직 仔細한 報告文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豫報로써 그 存在를 紹介하 두는 바이다.

畫帖『虛無』

全 卷 弼

鄙藏書畫에 「虛無」라 題한 筆者와 年代가 다 未詳인 古畫帖一卷이 있 다. 紺紙로 表裝한 外邊 高二九·五cm 幅二二·三cm의 二十面으로 된 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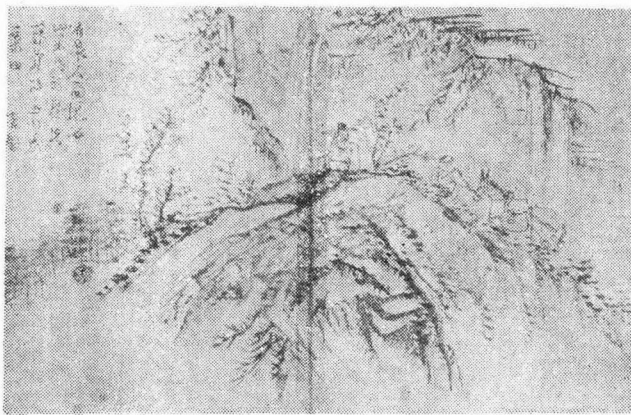
水畫帖으로서 第一面 右肩에 荷? 第二十面 末尾에 西? 라는 所藏印이 있다. 最終帳인 二十面の 左端 欄外

第三面에 西原 韓相 後人 學 韓相 이라는 所藏印이 있다. 奉贈 韓碩士 玉淵題라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畫帖이 「玉淵」이라는 舊所藏者로부터 韓碩 士라는 人物에게 보내 진 것임을 알 수 있으 며 따라서 第二面에 적힌 「西原後人」 「韓 相學」이라는 款印은 이 韓碩士의 所藏印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第一 面과 第二十面에 적힌 未解得의 款印과의 關 係는 알 수가 없다.

畫帖의 內容을 보면 紙本에 水墨淡彩로 第 一面이 芭蕉圖、 第二 面이 「蜀犬吠日」 第三 面이 「妙吉祥」 第四面 以下가 繼續 風俗圖와 山水圖이며 第二十面 을 「慕仙圖」로 끝내었 다. 各面에 行書體로 畫題를 쓰고 杏園이라 는 落款이 있는데 매우 關達한 筆致이며 黑色



浪 鷗 圖



山 水 人 物

이 淡墨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림 그리던 餘勢로 써여진 것이리라 고 짐작된다. 이 落款에는 畫題 書頭에 葉形印形 하나와 雅號 밑에 적은 印形 두 개씩을 朱로서 그려 넣었는데 이 세 개의 印形에 그려진 文字는 未解讀이다. 다만 十八面에만 「杏園」이라는 雅號外에 「怡」라는 單字名을 써 넣었음으로써 每帳 그려 넣은 印形中 下段印形의 右便文字가 「怡」字라고 解讀될 뿐이다.

이 畫帖의 그림은 大體로 翎毛와 人物, 또는 樹枝法 等이 그 構圖法과 함께 檀園의 風格을 彷彿케 하는 老練한 그림이며 別圖 寫眞「山水人物」이나 浪鷗圖는 한층 그 感이 깊다. 이 畫帖의 裝幀이 보인 古格이나 畫面에 풍기는 非凡한 格調로 보아서 檀園의 作品이 아니면 아마도 檀園과 同時代 或은 이에서 멀지 않은 時代의 優秀한 作家의 솜씨로 된 作品으로 比定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되나 「杏園」의 正體에 對해서는 아직 그 解明의 端緒를 잡지 못하고 있다. (二九六〇、八、二九)

通度寺 寶物櫥所在 白磁寶珠

崔 淳 雨

梁山 通度寺 寶物櫥안에 異形 白磁器 하나가 있다. 높이 一八·七cm 胴徑 一三·五cm의 一種의 寶珠形으로서 器底의 中央에 直徑 〇·七五cm의 둥근 구멍이 뚫려 있고 器底에서 四·五cm 相距한 胴體下部에 等高로 뚫린 두 개의 작은 구멍이 나란히 붙어 있다. 寶珠形의 上尖部는 普通 陶製 蓮蓬과는 달리 二層으로 마디가 지어져서 全體의 形象이 마치 浮屠形에 가까우며 寶珠의 胴體下部에는 높이 約 四·五cm 部位로부터 모래기로 대법하게 아래도리를 후려쳐서 器底部의 直徑은 겨우 七·五cm 밖에 안 된다. 釉藥은 牙白色이며 잘게 釉龜裂이 있어서 그 器形과 함께 자못 古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寶物櫥안에 保管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通度寺의 中心建物인 大雄寶殿에는 지붕 용마루의 근데

근데와 추녀위에 一列로 陶製 蓮蓬 모양이 장식되어 있음은 일찍 부터 注意되어 온 바이다. 이들 大雄寶殿 위의 蓮蓬을 가까이서 觀察할 수가 없어서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望遠境으로 보면 마치 연꽃 봉우리의 形象과 흡사한 白磁製品으로서 그 尖頭에는 或是 鐵砂로 장식한 것인지 이가가 긴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윤치 있는 色彩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去年에 이에 酷似한 形象의 雅趣있는 白磁蓮蓬 한 개가 서울 S 古美術商에 나와 全盛弼氏의 所藏으로 되었는 데 이로써 通度寺 지붕 蓮蓬도 대장 이런 類의 것이리라 는 짐작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寶物櫥속에 남아 있는 寶珠는 크기로나 形態로나 이것들에 비할 것이 아니며 果然 이것이 通度寺의 元大雄寶殿에 썼던 예전 蓮蓬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그 形態와 뚫린 구멍 등으로 보아서 直覺적으로 이것이 매우 古格있는 개와 지붕 연봉이라고 느껴진 것이다. 寶珠形을 개와 지붕 용마루나 추녀끝 瓦釘의 못머리 위에 덮어 씌우는 예는 일찍이 中國에서 시작되었던 모양으로 有名한 宋代의 「營造法式」에도 「葱臺頭釘」 등의 文字가 나타났으며 中國人들은 이것을 帽釘이라고 불렀던 모양이다. (註)

韓國內에는 現在 銀海寺 靈山殿, 松林寺 大雄殿, 神溪寺 大雄殿, 傳燈寺 大雄殿, 通度寺 大雄寶殿, 梵

